

■ “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의 현황과 특징”(강승복 연구원)

-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는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편, 여성근로자 중 거의 절반이 저임금근로자로 나타남.
-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임시·일용직일수록, 청소년 또는 고령층일수록, 저학력일수록, 여성의 경우 기혼일수록, 그리고 시간제근로일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들의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은 것으로 파악됨.
- 여성 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산업은 제조업, 도소매업, 음식숙박업 등이며,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등에 집중되어 있음.

문의처 : 한국노동연구원 강승복 연구원

Tel : 782-0141(317) E-mail : kangsb@kli.re.kr

*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(<http://www.kli.re.kr>)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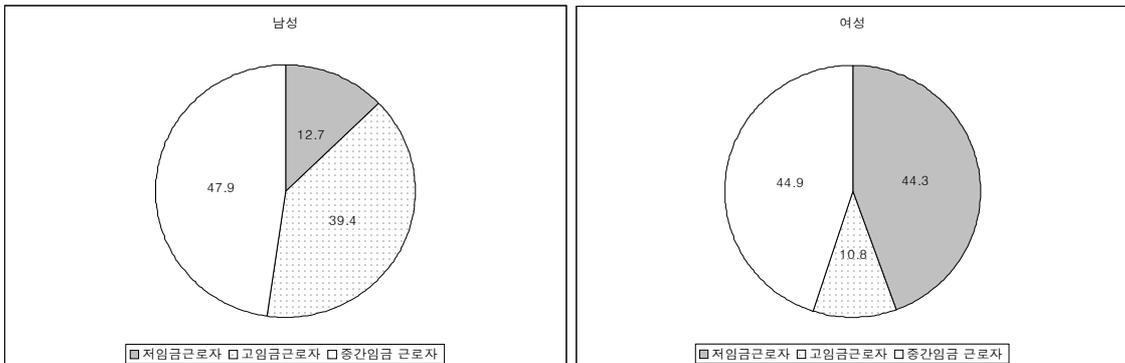
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의 현황과 특징

담당자	강승복 연구원
전화	02)782-0141(317)

-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는 여성에서 압도적 비율을 보여
 - 2004년 8월 현재 저임금근로자의 기준이 되는 중위임금의 2/3값은 867천원으로 나타나며,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14,584천명 중 25.9%인 3,784천명인 것으로 파악됨.
 - 이들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, 남성 근로자의 12.7%가 저임금 근로자로 분류된 반면 여성의 경우는 44.3%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.

[그림] 성별 저임금 근로자비율 (2004년 8월 현재)

단위 : %



주 : 저임금근로자=중위임금*2/3 미만자, 고임금근로자=중위임금*3/2 초과자로 정의.

<표 1> 연도별 저임금 근로자수 및 비율

단위 : 천명, %

	2000	2001	2002	2003	2004
남성 전체 근로자수(천명)	7,896	8,059	8,258	8,283	8,489
남성 저임금근로자수(천명)	921	770	877	841	1,082
남성 저임금 근로자비율(%)	11.7	9.6	10.6	10.2	12.7
여성 전체 근로자수(천명)	5,305	5,481	5,772	5,866	6,096
여성 저임금근로자수(천명)	2,325	2,060	2,331	2,220	2,702
여성 저임금 근로자비율(%)	43.8	37.6	40.4	37.9	44.3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」, 2004.8.

○ 주로 임시·일용, 고령층, 저학력, 시간제근로 층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발생

- 저임금 근로자는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보다 임시 및 일용직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남. 특히 일용직여성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85.4%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.
- 연령별로는 청소년층과 고령층에서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, 특히 50대 이상 여성의 절반이상이 저임금 근로자로 나타남.
- 학력별로는 남녀 모두 저학력일수록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가장 고학력인 대학원졸업자라 하더라도 10%가 넘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보이고 있어 남성과 대조를 보임.

○ 각종 사회보험에서도 저조한 가입률 보여

-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에서도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, 국민연금, 건강, 고용보험의 미가입자 비율이 남녀 모두 70%를 상회하고 있음.

<표 2> 각종 사회보험 미가입자 비율

(단위 : %)

	전체 근로자		저임금 근로자	
	여성	남성	여성	남성
국민연금 미가입자 비율	52.4	31.9	75.0	81.5
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	51.0	29.8	73.2	74.5
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율	58.0	40.6	74.9	81.2

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」, 2004. 8.

○ 기혼 여성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미혼 여성보다 높아

- 남성이 미혼에서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반하여 여성은 기혼에서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미혼보다 높게 나타남.
- 이는 기혼여성의 임시·일용직 비율이 66.0%로서 미혼의 47.3%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될 개연성이 높는데 연유

○ 여성 저임금 근로자는 산업별로 제조업, 직종별로 단순노무직에 집중

- 여성 저임금 근로자는 산업별로 제조업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, 이 밖에 도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개 산업에 절반이 넘는 숫자가 분포되어 있음.
- 직종별로는 절반이 넘는 숫자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과 마찬가지로 직종에서도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

○ 고임금 산업과 직종에서 차별에 의한 진입장벽을 완화해야

- 근로소득보전제도(EITC) 등 근로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고임금 산업과 직종에서 차별에 의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일 것임.
- 또한 남성에 비해 기형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여성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함.